

Contents

I. 해외연수 개요	3
II. 연수일정	5
III. 핀란드(Republic of Finland)	7
1. 핀란드 현황	7
2. 주요 견학내용	13
3. 주요 방문지	21
IV. 러시아(Russian Federation)	25
1. 러시아 현황	25
2. 주요 견학내용	37
3. 주요 방문지	64
V. 맺은말	81



2011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

- 경제건설분야에 대한 선진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수집된 자료를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 글로벌 시대에 알맞은 선진 정치·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혀 현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의 의정방침을 구현하고자 함

I. 해외연수 개요

- 연 수 명 :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 기 간 : 2011. 5. 29(일) ~ 6. 4(토) / 5박 7일
- 방문국가 : 2개국(핀란드, 러시아)
- 연수내용
 - 환경 친화적 주거 복합 도시 구현 현황
 - 친환경 에너지 공급 실태 및 순환프로그램
 - 산업시설, 관광시설의 투자 유치 현황
 -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고효율 에너지 첨단건축물 현황
 - 도시경관 정책(간판, 디자인 등) 및 도로·건축 등 건설 정책
 - 국제업무단지 등 신도시 건설 및 운영 현황
- 연수인원 : 11명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9명) : 홍건표, 오세봉, 고춘석, 곽도영, 김동일, 김성근, 박상수, 이숙자, 정재웅
 -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 최종상, 장철균



○ 연수 주요 내용

1. 핀란드 헬싱키 지역

- 에코비키 생태신도시 건설 배경 및 개요, 건설특성
- 자연을 도입한 공간계획, 경관연출 계획, 건축물 디자인, 간판 등 경관 형성 자료수집
- 원로원 광장, 마켓광장 등 주요 시설 견학

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 상트페테르부르크시청 도시개발건축위원회 방문
- 도시 기반 및 관광 등 주요 시설 투자유치 및 개발 사례
- 도로, 교통 및 건축 제도에 관한 사례
- 도시경관 정책(건축, 디자인 등)과 선진 사례 등 조사

3.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 주요 도시개발 및 건설투자 사례 등 조사
- 러시아 지하철, 붉은광장 등 주요 건축, 교통, 관광 시설 견학
- 신도시 건설 및 운영현황, 관광시설 유치 및 운영 사례 조사 등

4. 공통

- 방문 도시의 사회·문화·관광 시설 등 해외문화 탐방



II. 연수일정

○ 주요 방문지역 및 경로

일 자	지 역	출발	도착	연 수 일 정
제1일 5/29 (일)	춘 천 인 천 모스크바 헬싱키	08:00 13:35 20:10	11:00 17:50 20:55	강원도의회 출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 인천 출발 / 세레메티예보 향발(약 9시간 소요/시차:5시간) 세레메티예보 공항 도착 및 연결편 대기 모스크바 출발 / 헬싱키 행(약 90분 소요 / 시차:1시간) 헬싱키 공항 도착 및 호텔 투숙
제2일 5/30 (월)	헬싱키 페테르부르크	09:00 19:00	10:00 14:00 23:36	에코-비코 생태지구 방문 원로원 광장, 마켓 광장, 마켓 시장 견학 헬싱키 출발 /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행 열차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도착 및 호텔 투숙
제3일 5/31 (화)	페테르부르크 (푸쉬킨) 페테르부르크	09:00	10:00 16:00 18:00	푸쉬킨 도시 방문 세인트 니콜라스 시장 견학 석식 후 호텔투숙
제4일 6/1 (수)	페테르부르크	09:00	17:00 18:00	바실리섬 대형 여객터미널 방문 관광 및 상업시설 관련 투자유치 관리·운영실태 견학 니코리스크 시장 견학 석식 후 호텔투숙
제5일 6/2 (목)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09:00 18:35	10:00 13:00 16:00 19:50	페테르부르크시청 도시개발건축위원회 방문 에르미타췌 박물관 및 트리니티 시장 견학 가스친닉 드보르라 및 뱍스키대로 견학 페테르부르크 출발 / 모스크바 향발(1시간20분 소요) 모스크바 도착후 석식 및 호텔투숙
제6일 6/3 (금)	모스크바	09:00	10:00 21:10	모스크바 국제업무 단지(MBIC) 방문 유럽 최대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모스크바 단지 견학 모스크바 출발 / 인천 향발(약 9시간 소요)
제7일 6/4 (토)	인 천 춘 천		10:50 14:00	인천공항 도착 인천 출발 / 춘천 행 춘천 도착 및 해산



III. 핀란드(Republic of Finland)

1. 핀란드 현황

- 공식명칭 : 핀란드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 인 구 : 5,210,000명
- 면 적 : 338,000km²
- 수 도 : 헬싱키(Helsinki)
- 정 체 · 의회형태 : 의원내각제형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독립연월일 : 1917. 12. 6
- 화폐단위 : EURO
- 국 가(國歌) : 핀란드(Our land)
- 스웨덴과 러시아의 2대 강국에 끼여 있으며, 20개의 주로 구성된 국가

가. 지 형

북쪽은 노르웨이, 서쪽으로는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있다. 서쪽은 보트니아 만, 남쪽은 발트 해, 남쪽은 핀란드 만과 맞닿아 있다. 보스 만 건너편은 스웨덴, 핀란드 만 건너편은 에스토니아이다. 동쪽에서 남쪽 걸쳐 러시아와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핀란드 국토의 4분의 1 정도는 북극권에 있어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 관찰된다. 핀란드 최북단에서는 여름에는 73일 동안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51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다.



나. 기 후

핀란드의 기후는 추운 겨울과 온화하고 따뜻한 여름이 특징적이다. 핀란드의 여름은 해가 길어져 저녁에도 밝을 뿐만 아니라 북쪽 지방은 73일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 핀란드 북쪽 지방에는 지평선 아래로 51일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

여름 기온은 영상 20도 정도이며 남쪽과 동쪽 지역은 때때로 영상 3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겨울 기온은 대부분 지역들이 영하 20도 아래이며 라플란드가 가장 추운 곳이다. 헬싱키의 평균 기온은 7월이 영상 17도, 2월이 영하 5.7도 이다. 핀란드는 계절에 따라 독특한 변화를 보인다.

다. 인구 및 인종

핀란드인들은 스칸디나비아족과 발트 인종에 속한다. 파란눈과 금발머리의 핀란드인이 93%이고, 스웨덴인 6%, 기타 사미족 및 러시아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초창기 핀란드에 제일 먼저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사메’ 인들은 주로 라플란드 지방에 살고 있다. 핀란드 인구는 521만명으로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 마다 17명이며, 도시인구는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라. 정치제도

핀란드의 정치제도는 의원 내각제를 기초로 하였지만, 대통령에게도 일정한 권한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로 대표되는 내각이 가장 큰 행정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며, 의회가 국권의 최고 기관이다. 정치 형태는 해방 이후 반 대통령제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재보다 더 큰 권력이 있었지만, 1990년 이후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져, 행정권의 비중이 대통령에서 내각의 총리에게 대폭 위임되었다.

최고 입법기관인 의회는 단원제로 2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15개 선거구로 나누어 개방식 비례 대표제 선거로 뽑힌다. 의회는 헌법을 고치거나 내각을 해임시키거나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부권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유럽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1906년 보통 선거권이 실시된 이후 핀란드 국회는 우파인 국민연합당, 농민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 좌익연합 등의 정당이 지배해왔다. 핀란드는 소련의 영향력이 컸던 냉전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행정부의 장인 총리는 부총리와



장관과 함께 내각을 구성한다. 각 각료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총리는 총선 후 각당 대표의 협상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취임한다. 다른 각료는 총리의 임명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부패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 민간 활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한 정치 부패 인식 지수 조사에서는 2004년까지 1위를 지켰지만, 2009년에는 6위로 떨어졌다.

핀란드의 헌법에서 특이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에게는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핀란드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성문 헌법이 없는 영국뿐이다.

마. 경 제

인구가 대한민국의 1/10에 불과한 핀란드는 1980년대 이후 농업 및 임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휴대 전화의 생산량이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첨단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선진국으로 현저한 변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2008년 현재, 종사자별로 농업 4.5%, 공업 18.3%, 건설 7.3%, 상업 16%, 재무·보험 14.5%, 교통·통신 7%, 공공 서비스 32.4%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산업이 전체 경제의 65.7%를 차지하고, 공업이 31.4%를 차지한다. 주요 공업 부문으로는 전자 21.6%, 기계·자동차·금속공업 21.1%, 삼림공업 13.3%, 화학공업 10.9% 등이 있다.

150년 전 제지업체로 시작한 노키아와 리눅스로 유명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선두가 되었다.(2002년 2위로 발표되었다가 재평가 후 1위로 수정되었음).

여성의 노동력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법률가, 의사는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여성도 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하면 아직 적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규직으로 고용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젊은



여성에 계약직 일자리가 많다. 타임뱅크 제도를 적용하여 바쁜 시기에 근무하여 바쁘지 않은 때 여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한다. 1994년에 16.6%까지 상승한 실업율은 불경기에서 벗어나 해마다 개선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7.7%까지 떨어진바 있다.

바. 종교 및 교육

종교는 개신교(루터교)가 89%, 동방 정교회가 1%, 무종교 9%, 기타 이슬람교 등이 있다.

올란드 제도를 제외하고 학교에서는 핀란드어가 필수이며, 스웨덴어도 필수로 지정되어 있고, 영어 및 기타 언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계 국민은 어려서부터 TV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핀란드어를 접하게 되고, 보통 종합학교 7학년부터 학교에서 스웨덴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현재는 스웨덴어보다 영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종합학교 3학년 정도부터 영어 수업을 시작한다. 또한 종합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과정으로 9년)에서도 다른 외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 과목 교육 과정 등은 지자체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국가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4 ~ 5개 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핀란드인도 많다.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별이 없으며 학교 제도는 종합학교를 9년간 다니고 고등학교에 3년간 다니는, 일명 9-3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합학교 9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진로를 찾기 위한 1년간의 휴학을 채택하고 있다.

대학은 모두 국립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핀란드의 교육 수준은 세계 교육계에서 "핀란드 메서드"로 주목할 만큼 수준이 높다. 학생들은 경쟁에 의한 상대 평가가 아니라 달성도에 의해 평가되는 절대 평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력의 차이를 무시한 평등 교육이 아니며, 고등학교는 종합학교 중등반 성적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종합학교의 교육에 주목할만한 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 특별 학급에 배정되거나, 보충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력을 차별화하여, 저학력 학생에 대한 개별 교육으로 뒤떨어진 학업성취도를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이 학교의 인형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핀란드 교육의 특징이다.



사. 역 사

♣ 고대

역사가들의 의견으로는 핀란드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때는 빙하기가 끝나 얼음이 녹던 기원전 8000년 경부터일 것이라고 한다. 처음 이 곳에는 수렵 채집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원전 5300년경부터는 토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랄-알타이어족의 일파인 핀우그리아어파 사용자들이 석기 시대 때부터 동쪽에서 핀란드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핀란드어와 북부 소수민족인 사미인이 사용하는 사미어 모두 핀우그리아어파에 속합니다.

기원전 3200년경에 남부 지방에 전투도끼와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는 신석기 시대 농경문화의 발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남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수렵과 어업이 주로 행해졌다. 청동기~철기 시대에는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 북부, 발트 해 연안과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화려한 무덤들을 통해 3세기 이후부터는 수장 등의 귀족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세 ~ 1차 세계대전 전

바이킹 시대 이후 핀란드에는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핀란드의 땅은 스웨덴 왕국으로 편입되었다. 12세기 중엽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하지만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11세기부터 전래되었다고 한다.

핀란드는 13세기 부터 본격적으로 중세 유럽 문화권의 일부가 되었는데, 1238년 또는 1249년 비르게르 백작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 스웨덴의 핀란드 지배의 터를 단단히 다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에 스웨덴인들은 여러 핀란드 땅에 정착하여 스웨덴어를 많이 쓰이게 하였고, 1362년부터는 핀란드 대표자들의 스웨덴 국왕 선출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후 1397년 에리크가 칼마르 연합왕으로 즉위할 때 핀란드도 이에 편입되었다. 15세기 후반 모스크바 공국과의 마찰지역이 되었지만 대체로 잘 넘어갔고, 칼마르 연합 와해 후에도 핀란드는 스웨덴 왕국의 영토



였다. 하지만 1596년 세금과 징집을 견디지 못한 핀란드인들의 곤봉 전쟁 이후 여러 게릴라식 유혈 충돌도 자주 벌어졌다. 1630년대에 아돌프의 군사 개혁 후 스웨덴이 30년 전쟁에 개입하였고 이 때 핀란드의 하카펠리타는 용맹과 잔인함으로 악명을 떨쳤다. 1640년대에는 대학이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스웨덴의 오랜 핀란드 지배는 끝나가려 하고 있었다. 18세기 대북방 전쟁에서 스웨덴이 패하면서 핀란드의 국토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스웨덴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틈을 타 핀란드 장교들이 무장봉기를 하기도 했다.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결국 핀란드는 러시아의 자치 대공국이 되었다. 19세기에는 핀란드의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핀란드 민족주의의 부흥으로 인해 핀란드어와 핀란드 문화가 장려되기 시작했다.

♣ 근대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7년 핀란드는 독일제국의 형식상 제후국이 되었다. 1918년에는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핀란드 내전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공산-사회주의 연합 반란군의 패배로 끝이 났다. 또한 독일이 제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면서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1939년 영토를 넘기라는 스탈린의 요구를 핀란드가 거절하자 겨울 전쟁이 시작되었다.

칼 구스타프 만네르헤임 장군이 선전했지만 1940년 패배하여 더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 1941년 독일의 지원 아래 계속 전쟁이 벌어져 처음에는 영토를 되찾았지만 소련의 반격에 다시 잃었다. 1944년에는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한 라플란드 전쟁이 발발했다.

♣ 현대

전쟁 후 핀란드의 재건은 점차 이루어졌고 핀란드 지도자들은 구소련과의 친선 관계 유지에 노력했으나 서유럽과의 관계가 더 친밀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서방



과의 무역창구로 쓰려던 소련의 정책에 따라 주 무역국가는 소련이었는데, 이는 핀란드의 경제발전을 도왔다. 핀란드는 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유지하였고, 외교적 중립을 선언했다. 그 후 핀란드는 1995년 EU에 가입했다.

2. 주요 견학내용

가. 생태 신도시, 에코-비키(Eco-Viikki)

1) 건설배경

이 지역은 서쪽으로는 고속도로와 Vantaanjoki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Myllypuro 삼림지역, 남쪽은 새들의 천국인 습지 등 자연보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다. 중세기에는 가장 풍요로운 교구의 마을이었고, 1550년 헬싱키가 건설된 이후 국가소유의 농지로서 Vantaanjoki 왕가소유 양식 보급 역할을 했다.

지역 내 Latokartano 지역은 지구청장과 군 장교시설로 이용되어 왔고, 일부 토지는 개인에게 임대되어 왔다. 1931년 이후에는 대학교 강의 및 연구시설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비키지역은 계속 성장하는 수도의 중심부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경관을 유지해 왔다.

비키 지역은 넓은 농지 등 공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북동쪽 7Km 거리에 입지하며, 철도, 자동차전용도로 및 순환도로로 도심과 연결되어 있다. 헬싱키 국제공항과도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비키 지역은 도심인근의 공지로서 헬싱키의 평면 확산방지를 위해 개발이 착수됐다. 스톡홀름은 그동안의 도시 확산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매년 5,000동, 향후 25년간 10만동의 신규주택이 필요할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비키 지역의 개발계획은 1989년부터 수립이 추진되었고 1995년부터 주거기능을 갖춘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의 개발이 착수됐다. 1990년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1994년 두 번의 도시설계 공모를 거쳐 건물과 녹지공간을 번갈아 배치하는 손가락 형태의 디자인을 갖춘 "Eco-Viikki" 생태주거단지 개발이 본격화됐다.

헬싱키 에코-비키 위치도 및 도시개발 배치도



2) 건설개요 및 구역별 특성

비키 신도시의 총면적은 11.32km²이고 이중 25.8%인 2.93km²는 교통과 택지이고 나머지 74.2%인 8.42km²는 위락 및 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키 지역은 Science Park, Latokartano, Viikinmaki 및 Viikinranta 등 4구역으로 나뉘어 각각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Science Park는 1995년~2012년, 규모가 가장 큰 Latokartano는 1999년~2012년, Viikinmaki 지구는 1998년~2010년, Viikinranta는 2003년~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Viikki 지구는 핀란드정부에 의거 1998년 12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으로 승인받은 후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2025년까지 인구규모는 Science Park는 2,300명, Latokartano는 10,600명, Viikinmaki는 3,500명, Viikinranta는 1,600명으로 2030년까지 Viikki 신도시 전체의 목표인구는 10,000가구의 18,000명에 달할 예정이다. 이밖에는 6,000명의 고용과 6,000명 정도의 학생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비키 자연보전지구인 인접 습지 및 에코-비키 Science Park 전경

<건설일정계획>

Science Park	1995-2012
Latokartano	1999-2012
Viikinmaki	1998-2010
Viikinranta	2003-2030

<Viikki 신도시 구역별 인구계획>

구 분	2002	2005	2009	2025
Science Park	2,600	4,800	9,000	10,600
Latokartano	600	800	1,600	2,300
Viikinmaki	300	1,100	2,400	3,500
Viikinranta	300	300	300	1,600
전체 Viikki	3,800	7,000	12,300	18,000



구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① Science Park는 Viikki 신도시의 대학구역의 중심 부로써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을 따라 조성된 biological science, 농업, 산림, 환경 및 영양학 관련 대학 학과, business office,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이 집중된 고밀도 개발지구이다.

Science Park는 헬싱키 대학의 캠퍼스, 사무실, 창업센터지구, 쇼핑센터, 주거단지, 대학의 실험농장, 공공건물 및 공원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내 대학은 헬싱키 대학의 4대 캠퍼스의 하나로 주변의 민간 R&D, 첨단기업과 함께, 세계적인 생물학 교육 및 연구기능의 집중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핀란드 정부, 헬싱키 시정부, 핀란드 국립 R&D재단 및 상공협회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대기업의 생물 관련 첨단기업 및 R&D 기능 유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Science Park 내에는 쇼핑센터, 호텔, 지역서비스, 사무실 및 비키 신도시 정보센터 등 도심 기능이 조성되고 있다. 2010년 현재 1,600명의 인구와 3,600개의 일자리, 약 5,000명의 학생으로 추정된다.

② Latokartano 지구는 10,000명의 인구수용을 목표로 하는 Latokartano 지구는 비키 신도시의 가장 큰 규모의 주거단지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한 지역적 정체성을 살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는 주로 4~5층의 다층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준 단독주택 등 다양한 규모와 주거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의 점유는 소유주택, 점유권주택과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화하여 광범위한 소득계층이 거주토록 하고 있다.

태양 집열판이 설치된 다층주택 및 passive solar 에너지 활용 연립주택

Lato 지구는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 및 일자리 유치를 위해 100,000m²(3만평) 규모의 시설이 건설 또는 건설 중에 있다. Lato 지구에는 2개의 학교와 학교 연계 탁아소 및 소단위 탁아소, 레스토랑, 클럽하우스, 의료 및 전문상가, 사무실 및 회의장 등 헬스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지역 사회형성을 돕기 위해 소주거단위 별 클럽하우스 및 주민회의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중앙공원과 스포츠 공원 및 종합학교 시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자연경험과 다양한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원과 연계된 지하 방공호는 내부에 헬스 시설을 갖추어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주거구역 녹지대(green filter) 배치 모습 및 태양 에너지설비를 갖춘 주택

기타 지구인 Viikinmaki와 Viikinranta는 모두 주거단지로 개발되며, 이중 Viikinmaki는 1998년부터 추진되어 2010년 완성 되었으며, Viikinranta는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예정이다. 2009년까지 계획인구는 각각 2,400명 및 300명이고, 목표연도에는 각각 3,500명, 1,60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현재 단계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위락 및 자연경험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추정에 따르면 2012년까지 추정인구는 Science Park 2,000명, Lato 지구 11,000명, Viikkimaki 2,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취업인구는 6,000명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3) 친환경건설 특성

Lato 지구는 생태건축을 위한 실험지구로써 건강하고, 장기적이고 유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근본목적이 있다. 주택건설과 관리기간 중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해로운 대기배출의 방출을 방지하며, 폐기물 생산 최소화가 목적이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해법은 두 차례에 걸친 도시설계응모를 통하여 얻어졌다. 지구내의 건축허가는 다음의 5가지 차원에서 건축물의 생태적 생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신도시지역의 생태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오염(pollution),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건강(health),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식량생산(food production)이다.

디자인 계획안의 평가에 따르면 이 지역은 헬싱키의 일반주거지에 비하여 화석연료에 바탕을 둔 난방에너지 50%, 대기배출 40%, 수돗물 1/3, 폐기물 1/3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생태 건축을 위한 다양한 시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 태양열 난방이다. 이를 위해 남향배치와 단열, 열손실을 막는 환기, 환풍장치 등 수동형 햇빛 이용 및 가정 전력사용의 25-30%를 담당하는 태양집열판 등 능동형 태양에너지 수집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400가구의 온수공급



절반은 태양에너지에 의존한다.

에코-비키 내 개별 화단과 자전거 길 조성 사례

그리고 모든 주택은 판유리 발코니, 온실 또는 개별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별로 주택 앞 및 인근 농지에 배정된 토지는 퇴비화된 부식토, 빗물 및 눈 녹은 물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co-Viikki는 주거구역 사이로 손가락 형태의 녹지공간이 관통하도록 되어 있다. 녹지공간은 주민의 쉼터, 산책, 텃밭으로 사용되는 외에도 지하의 빗물저장탱크, 빗물을 처리하는 인공수로 역할을 한다.

헬싱키 시는 생태적 건축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기준은 탁아소의 설계, 건축 및 사용에 적용되고 있고, 어린이와 젊은 층을 위한 생태공원, 종합 원예센터, 지표수 여과를 위한 개울을 건설하고 있다.

실험적 생태건축의 성공은 다음 사업에 적용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헬싱키 대학에서도 에너지효율, 아파트건물의 목조 사용 확대 등 생태적 해법을 개발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계획당시 목적은 지역이 지닌 농업적 경관특성을 유지하고, 산림지대를 강조하며, 여가 도보 및 자전거 길을 전통적인 야외도로로 지켜나는 데 두었다.

특히 도로변의 풍부한 야생 꽃을 활용하여 계절별로 색깔을 달리하는 소위 “경관 꽃길”을 설치토록 했다. 자연보전 및 수목과 바위를 지닌 산등성으로 구성된 800ha의 동부지역녹지는 산림, 산책, 조류탐방, 경근철 스키장의 역할을 한다. 자연경관계획은 녹지지역의 중단없는 연속성, 식생종의 다양성, 경계지역 구역단위 식생 차별성을 중시한다.

4)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㉔ 대도시권 중심부 인근의 신도시

비키 신도시는 주택 및 토지수요가 풍부한 대도시 인근의 신도시로써 경제적으로 도시건설 조건이 양호하고 도시의 의식화된 중산층의 유치가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생태도시는 아직까지 전통도시보다 개발비용과 부담이 높고 친환경적 삶에 따른 생활 불편도가 높아 수요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 실험과 진화과정의 생태도시

생태도시는 확정된 조건과 기준 및 설비를 갖춘 완성된 도시가 아니고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실험과 평가를 통하여 기준과 목표를 재상정하고 진화된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회사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과 건축은 각각 다양한 특성과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를 평가하여 최적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주거단지라 하더라도 건설기간이나 사업자에 따라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기능이 다르다. 다만 단계별로 표준화된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범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인 설계기준이나 방식을 강요하는 시스템보다는 진화론적 관점에 발전이 가능한 도시개발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시스템의 구축이다. 스웨덴은 생태환경도시의 개발모형과 기술을 수출산업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경제적 지속성 높은 도시개발

Viikki 신도시의 경우 생태도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주거단지 및 건축 공사비의 5% 이상 되면 경제적 지속성이 없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생태도시를 만든다고 가격이 비싸고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선진 기자재의 활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m²(21평형)의 주거단위의 가격은 25만 유로(3억5천~4억원) 가량으로 높아 비교적 엘리트 계층만이 거주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는 국가이다. 이 같은 소득계층의 차별화방지를 위해 소유와 임대주택 비율을 계획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는 가구원수가 많고 어린자녀가 있는 도시 전문가 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 실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축기준의 활용

경제적 지속성과 실용성의 증진을 위해 화석 에너지 소비가 낮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계획 및 건축기준을 활용한다. 주택의 남향배치, 저층과 고층의 계획적 배치를 통한 수동적 태양빛 활용 확대, 지역 내 구득이 가능한 목재를 이용한 다층주택 건설, 실내 열 보전형 환기장치 또는 시스템 도입, 단열재, 빗물 활용



시스템 구축, 발코니 통판유리설치 및 태양 빛 활용 극대화를 위한 건축 실내 공간 유연성 확보 등이 경제적 지속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환경적 삶의 방식과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

생태도시는 도시개발방식이나 에너지 절감형 건축시설, 대체 에너지 생산 설비와 시스템만으로 형성되지 않고 그 곳에 사는 주민의 생태, 환경적 삶의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편리성보다는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이를 지키려는 실질적 생활양식과 관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태적 순환시스템의 구축이다. 지역에서 나온 빗물의 재활용, 태양열 활용 확대, 퇴비의 생산과 개별적 영농 연계 시스템, 개인차량운행의 최소화와 대중교통수단의 일상화, 자연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생태적 생활방식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과 교류를 위한 Infocentre 운영,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장소와 기회의 제공, 어린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키 지역은 자연환경보전 지역과 인접해 있어 초기에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심했으나 광범위한 환경영향 평가와 친환경적 개발로 현재에는 국제적 관심을 받는 생태도시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결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도시의 건설에는 단순한 친 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의 물적 환경의 조성보다는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친환경 신기술과 도시개발방식의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추진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상설 모니터링과 평가 및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조직과 프로그램 개발 운용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채광을 고려한 창호 설계와 태양열 집열판 설치 사례



3. 주요 방문지

가. 원로원 광장

알렉산테린 거리의 동쪽 끝 대성당 앞에 있는 광장으로 약 40만개에 달하는 화강암이 깔려있는 정사각형의 광장이다. 광장정면에는 핀란드 루터파의 총본산인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밝은 녹색을 띠고 있는 산화된 구리돔과 흰색 주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로서 칼를 앵겔이 설계했고, 1830년에 착공되어 22년만인 1852년에 완공되었으며, 각종 국가의 종교행사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중앙에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이 서있는데, 러시아의 지배를 1백 여 년이나 받았던 핀란드가 독립국이 되면서 적국 황제의 동상을 헐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는 당시 핀란드를 지배하던 알렉산드르 2세 황제가 당시 핀란드 인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서라고 한다. 우리도 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로원 광장의 알렉산드르 2세 동상 및 기념촬영

나. 마켓광장

항구도시인 헬싱키의 바닷가 바로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시장으로 핀란드 전통 음식부터 각종 과일과 야채, 핀란드의 기념품과 전통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데, 현지인 보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핀란드에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켓광장에서 과일을 사고 산책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가족같은 분위기인 선진국의 면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IV.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 러시아 현황

- 공식명칭 :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 인 구 : 약 1억 4,190만명
- 면 적 : 1,708만km²
- 수 도 : 모스크바
- 정체 · 의회형태 : 연방공화제, 다당제, 양원제
- 화폐단위 : 루블(ruble / Rub)
- 공식언어 : 러시아어
- 국 가(國歌) : Гим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극동에서 동부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로서 21개 공화국, 9개 지방, 46개 주, 1자치주, 4개 자치구, 2개시(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등 총 83개의 연방주체로 구성된 국가

가. 지 형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가진 러시아의 영토는 유라시아 대륙 북부와 발트 해 연안으로부터 태평양까지 동서로 뻗어있다. 국토의 북쪽은 북극권에 속해 인구가 희박하나, 남쪽에 가까워질수록 많아진다.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시베리아)의 대부분은 광대한 평원으로 남부의 스텝과 북부의 툰드라 지대가 펼쳐져 있다.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의 남쪽 국경에는 유럽 최고봉의 엘브루스 산을 포함한 카프카스 산맥이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는 우랄 산맥이 있다.



국토를 둘러싼 바다에는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 해, 백해, 카라 해, 랍테프 해,

동시베리아 해와 태평양의 일부인 베링 해, 오호츠크 해, 동해, 서쪽의 발트 해와 서남쪽의 흑해가 있고, 해안선은 37,000 km에 이른다. 이러한 바다에 위치한 러시아의 중요한 섬은 프란츠요제프 제도, 노바야젬라 섬, 세베르나야젬라 제도,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브란젤라 섬, 사할린 섬, 쿠릴 열도가 있다.

러시아 영내의 주요한 강에는 유럽 쪽의 돈 강, 볼가 강, 카마 강, 오카 강, 아시아 쪽의 오브 강, 예니세이 강, 레나 강, 아무르 강 등을 들 수 있다. 부라야트의 바이칼 호는 세계 제일의 수심이 깊은 호수로 유명하다.

러시아의 국토는 지형에 의해 3대 구역으로 구분된다. 즉 서부의 동유럽 평원과 동부의 서시베리아 평원 그리고 예니세이 강 동쪽의 산악 지대이다. 러시아 평원의 대부분은 빙하 시대에 얼음에 덮였던 곳으로 해발 수백 미터의 낮은 구릉이 있는 파상(波狀)의 평원이다. 서쪽의 국경 지역에는 발다이 구릉이, 평원의 남단에는 카프카스 산맥이 조지아·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역할을 한다.

나. 기 후

러시아의 기후는 그 위치·면적·지형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광대한 영토의 대부분이 중위도 또는 고위도에 위치하고 한랭한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해양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러시아의 서부에는 산지가 없고 대서양의 난류, 멕시코 만류의 수증기와 열이 편서풍으로 옮겨져 내륙 깊이 도달하기 때문에 기후의 내륙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감에 따라 증대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후는 위도에 의한 태양에너지의 입사조건의 차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화할 뿐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화한다.

러시아는 동서로 길 뿐 아니라 남북의 폭도 극히 넓어 남북의 기온차도 현저하게 크다. 예를 들자면, 흑해 연안의 소치는 1월의 평균 기온이 3.7℃인 반면,

최북단의 첼류스킨 곶 지방은 더운 날이 거의 없다. 특히 베르호얀스크에서는 기온이 -67.8°C 까지 내려간 일이 있어 북반구의 한극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대서양의 영향이 큰 서부는 해양성 기후로서, 칼리닌그라드에서는 한 해 동안의 기온 차이가 20°C 를 넘지 않고, 해면은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다. 그런데 시베리아의 레나 강 유역에서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0°C 가 되며, 야나 강이나 인디기르카 강 유역에서는 영하 50°C 로서, 이 지방은 이른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베르호얀스크에서 관측된 영하 68°C 는 세계 기록적인 저온이다. 이에 반하여 7월 평균 기온은 16°C 나 되기 때문에 이 지방의 연교차는 6°C 에 이르러 극도(極度)의 대륙성 기후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름철의 고온과 긴 일조 시간은 식물의 생장을 가능케 하고 또한 겨울의 혹한기에도 바람이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도 견딜만 하다.

다. 인구 및 인종

러시아에는 약 1억 450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 전체 인구의 약 80%를 러시아인이 차지하고 있고, 약 160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개 이상의 언어가 쓰이고 있으며 그중 가장 흔한 언어는 공용어인 러시아어이다. 러시아인을 포함한 많은 민족이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의 신도이지만, 로마 가톨릭, 개신교나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기타 종교 등의 신도도 적지 않다. 러시아인의 성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 부칭 이름이다. 순서는 이름+부칭+성의 순서이다.

라. 정치제도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4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헌법상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옛날의 차르가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것처럼 옛 황제의 권력을 계승받는다고 할 정도이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구 소련 시절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의회의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새헌법은 하원인 두마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조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인 연방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총선거 실시권은 물론 국회해산권도 갖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탄핵의 경우에 하원의원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의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2008년 현재 러시아의 유권자 수는 1억 900만 명 정도이다.

러시아의회의는 양원제로, 각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가 혼자씩 되어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연방원(연방 회의,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정원 178명)과 하원의원에 해당되는 국가원(국가 회의,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정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에 의해 반수씩 선출되는 구조였지만, 2005년 4월 23일 완전 비례 대표제로 이행하는 선거 제도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1917년까지는 수도였으며 페트로그라드)와 블라디보스토크(연해주) 등의 주요 도시도 존재한다.

러시아는 86개의 연방 구성체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연방 구성체 가운데

에는 비러시아계 민족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1개의 공화국이 포함되지만, 이러한 공화국에는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권이 없고, 연방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족 자치구와 마찬가지다. 현재 21개 공화국, 9개 지방, 46개 주, 1개 자치주, 4개 자치구, 특별행정단위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구성되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각 연방 구성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 13일에 전 국토를 7개로 나눈 연방관구를 설치했다. 2010년 1월 19일엔 남부 연방관구로부터 북캅카스 연방관구가 분리, 신설되었다.

마. 경 제

소련 해체 후 엘친 대통령의 주도 아래 시장 경제화가 진행되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불러,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적으로 침체되었다. 국영 기업들의 값싼 매각이 주식 대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른바 러시아 재벌들이 탄생하였고 고정 임금을 받는 계층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1998년에 러시아 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오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고유가와, 루블의 약세,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에 힘입어 러시아의 GDP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6.8%씩 성장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국내총생산이 약 6.7% 증가하였으나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아직 G8의 국가들보다 많이 작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게 자유 경제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여전히 러시아 정부는 경제에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 2009년 3월 14일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이 제시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단일통화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 산 업

구 소련은 1928년부터 실시한 계속적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미국 다음가는 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 생활 용품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 방면의 건설이 뒤져, 국민은 오랫동안 내핍 생활을 해야만 했다. 농업면에서도 발전이 뒤진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 가격 자유화 조치, 국영 기업의 민영화 계획, 토지 사유화 인정 법률 승인 등 일

련의 조치와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자 원

석탄의 가채(可採) 매장량은 구소련 전체로 약 2,400억t 으로 세계 제1위였고 채탄량은 1993년 3억 4,000만t에 달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석유 수출량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이다.

러시아의 천연 가스는 채취량에서나 수출량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이다. 천연 가스는 확인된 매장량의 70% 이상이 서시베리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지는 북카프카스·볼가·우랄·서시베리아 등이다.

1991년 구 소련의 총 전력 생산량은 1조 7,129억kWh 로 세계 제2위였으며, 그 대부분이 화력 발전에 의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볼가 강·예니세이 강 유역의 수력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력 수요가 늘면서 풍부한 화석 연료를 활용한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화력 발전이 70%를 넘으며, 수력 발전이 약 15%, 원자력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철광석 생산량은 1993년 4,267만 7천 M/T으로 세계 제4위였다. 이러한 막대한 철광석 생산량을 바탕으로 우랄, 쿠르스크, 쿠즈네츠크 지방에는 대규모 철강 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도처에 크고 작은 철강 공장이 들어서 있다.

♣ 국토종합개발

구 소련 정부는 광대한 국토의 미개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비약적인 국력을 이루어 보려는 뜻에서 국토 개발에 관한 여러 계획을 실행에 옮겨 왔다. 예를 들면 국토의 약 1/6을 차지하는 사막이나 반 사막의 녹지화(綠地化) 착수, 볼가 강과 돈 강을 연결하는 볼가-돈 운하, 그리고 거의 무진장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베리아 극지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녹지화의 예로서는 중앙아시아의 카라쿰 사막이나, 그 주변에 카라쿰 운하가 생김으로 해서 수십만 ha에 이르는 미관개 지역이, 대부분 목야(牧野)로 이용되게 되었고, 또한 카라쿰 운하는 장차 카스피아 해에까지 연장되어 길이 1,400km·150만 ha가 넘는 사막을 관개(灌溉)하는 대운하가 건설되었다.

제7차 7개년 계획으로 본격화한 시베리아 극동 개발은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어

앙가라, 예니세이 등 여러 하천의 풍부한 수력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혹은 여러 금속, 광대한 삼림 지대의 목재 등 방대한 자원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콤비나트의 건설도 이루어졌다. 1966년 이후에는 전국에 걸친 지력증진(地力増進)을 위한 종합 계획이 추진되어 관개·간척 등 토지 개량이 실시되었다.

♣ 교통

러시아의 철도 총연장은 8만 7,000km이며, 철도의 밀도는 1km당 4.5km이다. 현재 노선의 상당부분이 노후화되어 운송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컨테이너 수송률은 전체 화물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철도는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 및 발트 3국(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과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우랄산맥 동부의 첼랴빈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7,400km를 1905년에 연결한 대륙횡단철도이다. 유럽과 극동을 연결하는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간의 9,334km를 가리키기도 한다.

도로 교통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고속도로는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포장률도 극히 낮다. 러시아의 하천 수송은 시원치 않으나 볼가 강·레나 강·예니세이 강 등은 주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볼가·돈 운하는 볼가강과 돈강을 연결하는 운하이다. 길이 101km로서 1952년에 완성했다. 운하의 완성으로 볼가강 유역의 공업도시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도시도 수로로 흑해와 연결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항공 교통은 자동차 교통보다 급속히 발전해 왔다. 현재 러시아에는 민간 항공사 141개사, 항공기 8,200여 대가 취항하고 있으며 여객 수송의 2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기는 전 세계 87개 국에 취항하고 있으며 20여 개의 외국 항공사가 러시아에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을 위하여 수송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가스 수송관은 가스 산지에서 모스크바 지역 및 우랄 지역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고, 볼가·우랄유전의 석유는 석유 수송관을 통하여 이르쿠츠크 부근까지 보내진다. 현재 석유 수송관 8만 6,000km와 가스 수송관 18만 5,000km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 수송량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다.



♣ 에너지

러시아는 천연가스<가스프롬> 최대 보유국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 수출액의 60%를 차지한다. 유럽은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 상당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시작하거나 러시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는 대부분 서쪽으로 향해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구 소련의 국가들이었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 종교 및 교육

러시아의 종교는 기독교(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불교 등 여러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러시아 정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인의 문맹률은 많이 낮아졌으나 소수 민족의 문맹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러시아 전체의 문맹률은 중간 이하이다. 러시아의 교육 제도는 11년제이며, 소련 시절부터 실시되어 왔다(구 소련의 다른 공화국도 11년제를 도입하는 곳도 있음). 의무 교육이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초등학교는 3~4년, 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2~3년이다. 대학교는 5년제이다, 주요한 대학교로 모스크바 대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극동 국립 대학교, 민족 우호 대학교가 있다. 외국어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쓴다.

사. 역 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벨라루스의 원형인 중세의 루스 지역은, 862년에 노르만인 루리크가 노브고로드의 공이 되어, 그 일족이 동쪽 슬라브인의 거주지역에 지배를 펼쳐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연대기에 기록된다. 당초의 키예프 루시의 중심은,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이며, 현재의 러시아의 중심인 북동 루스는 오히려 변경에 위치해 있었고, 모스크바도 아직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지배층을 포함해서 슬라브화된 키예프 공국은 9세기에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동방 정교회와 비잔틴 문화를 수용해서, 독특한 문화가 생겼고 동유럽의 동슬라

브족은 10세기에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키예프 공국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13세기초에 몽골에 의해서 정복되어 킵차크 칸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키예프 루시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모스크바 대공국(1340년~1547년)은 몽골 지배하에서 루시가 한에 납입하는 공납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나중에 점차 실력을 길러서 15세기에 킵차크 칸국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벗어나 루시의 통일을 추진했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이반 3세(재위 1462년~1505년) 때 차르의 칭호를 자칭했다.

17세기 초에는 로마노프 왕가의 러시아 제국(1613년~1917년)이 수립되었다. 표트르 1세(재위 1682년~1725년) 때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고, 17세기에는 태평양 연안까지의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19세기엔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스를 합병하여 유럽·아시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갖는 대국가가 되어 유럽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 또, 해외 진출을 위해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정책을 추진하여 터키 등 주변국들과 전쟁을 일으켰고, 영국과의 팽팽한 대립이 더 심해졌다. 극동에서는 연해주를 청으로부터 획득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세우고,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했다. 극동에서의 강경한 남하정책의 결과, 일본과의 전쟁(러일 전쟁, 1904~1905년)이 일어났다. 러일 전쟁의 패배로 국내가 흔들린 후,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7년 3월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2월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무너졌다.

1917년 11월, 블라디미르 레닌이 지도하는 이른바 10월 혁명이 성공하자 일체 권력은 노동자·군인·농민의 대표자로서 조직되는 ‘소비에트(협의회라는 뜻)’에 있음이 선언되고, 소비에트 정부가 출현했다. 이렇게 혁명 뒤에 내전에 승리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인솔하는 볼셰비키의 혁명에 의해서,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건국되었다. 이어 러시아 제국의 통치 밑에 있었던 여러 민족은 혁명을 계기로 독립했으나, 1922년 12월에는 그 사이 독립하여 성장해 온 4대 사회주의 공화국 즉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백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및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하기로 하고, 각 공화국은 소비에트연방 결성의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의 최초의 형태가 성립했다. 러시아 제국을 계승한 소련을 구성하는 15의 공화국 가운데, 러시아인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되었고, 이

때 현재의 러시아 연방의 영역이 거의 확정되었다. 그후, 중앙아시아 방면의 여러 공화국이 소련방에 편입하고, 1940년에는 몰다비아 공화국 및 발트해 연안의 3개공화국이 편입하여 제2차 대전의 전승국이 된 소련방은 15개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냉전을 펼쳤지만, 통제경제의 파탄 등으로부터 날이 갈수록 공산주의의 자체모순을 드러냈다. 1985년 3월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대외적으로 '신사고'노선에 입각한 과감한 외교에 나서 냉전을 종결시키는 한편, 1986년 2월 제27차 당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및 글라스노스트(개방) 노선을 선언하는 등 공산주의체제의 정치적 부정부패척결과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각지에서 민족주의가 분출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 브레즈네프독트린(제한주권론)을 공식폐기하고, 1990년 2월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고르바초프가 구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90년 6월 12일에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러시아 공화국을 선언했고 주권 선언했다.

1991년 7월 당중앙위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하였다. 1991년 12월 고르바초프는 집권 6년 만에 연방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은 붕괴해 소련방에서 독립한 독립국들이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출범시켰고, 러시아도 그 가맹국의 하나가 되었다.

러시아는 구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권리(상임이사국 등)와 국제법 상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계승했고, 강대국으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명은 1992년 5월, 러시아 연방 조약에 의해서 현재의 러시아 연방의 국명이 최종 확정되었다(러시아 연방의 국명 변경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사임의 당일인 1991년 12월 25일, 당시의 러시아 최고 회의 결의에 의했다).

엘친 대통령은 1991년 11월 러시아 최고회의가 부여한 비상대권을 1년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추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가 악화됐다. 이를 계기로 엘친은 보수파의 온상인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의 심한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엘친은 사사건건 인민대표회의와 최고회의의 견제를 받자 3권 분립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10월 의회를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무장력을 갖추고 있던 의회보수파는 무력저항을

했으나 엘친은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다. 동 12월에 실시된 의회 재선거에서는 보수파의 의석이 크게 줄어 엘친은 보수파를 제압했으나 많은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여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이끄는 극우파와 공산당이 득세했다. 엘친 대통령과 인민대표회의간의 개혁정책 갈등은 1994년 10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8.5%의 찬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러시아 내에는 일당체제인 공산당 체제가 무너진 후 많은 정당들이 생겨났는데, 신헌법에 따라 1993년 12월 실시된 총선결과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선거에서는 친엘친계 예고르가이다르의 러시아의 선택당이 전체 450석 중 96석을 차지하여 최대 정당이 됐다. 그리고 극우파인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의 자유민주당이 70석, 공산당이 65석, 농민당 47석, 야블린스키연합 33석, 러시아 여성 25석, 러시아 민주당 21석, 시민동맹 18석, 민주개혁운동 8석, 존엄과 자선 3석, 러시아의 미래 1석, 기타 무소속이 30석을 차지했다. 러시아 선택당은 1994년 6월 당명을 러시아 민주선택당으로 바꿨다. 1996년 7월 3일에서 엘친은 53.8%를 득표해 승리하였다. 엘친대통령은 대선 후 건강악화로 1996년 11월 5일 심장수술을 받고 체르노미르딘 총리에게 전권을 일시 이양하였다. 그는 12월 23일 크렘린궁에 복귀해 리펑 중국 총리, 헬무트 콜 독일 총리 등과 회담하였는데 한편 러시아 하원은 1997년 1월말 엘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으나 부결처리 되었다. 1997년 1월 교사 50만명이 체불입금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3월 27일 러시아 전역에서 노동자 총파업에 200만명이 참가했다.

1999년 12월 8일에 당시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알락산드르 루카셴카 대통령과의 사이로, 장래의 양국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각 분야에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벨라루스 연방 국가 창설 조약이 조인되었다. 보리스 엘친 정부 하에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1999년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친에 의해 총리로 지명되었으며 그해 12월 31일 엘친이 사임하면서 총리로서 대통령직을 대행하다가 이듬해 3월 26일 열린 정식 대선에서 러시아의 2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07년까지 집권하며 혼란을 수습하고 러시아의 재건을 이끌었다. 2007년에 잠시 벨라루스와 에너지 분쟁을 겪었다.

메드베데프는 내년에 대통령을 사퇴하고, 푸틴에게 대통령직을 돌려줄 것이라고



노보스티가 보도했다. 하지만 푸틴의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2008년 11월 11일에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1월 14일에 러시아 하원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통과시켰다.

러시아도 경기침체에 빠져들면서 반푸틴 시위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3월 15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러시아는 체첸내전이 끝난 직후부터 10년 동안 체첸 공화국에 내렸던 안보통치체제를 해제했다.

메드베데프는 2011년 1월 5일에 연설에서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며 민족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시킨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24일에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되면서 최소 3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주요 견학내용

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 도시개발건축위원회 방문

1) 방문개요

- 일 시 : 2011. 6. 2(화) 10:00 ~ 11:00
- 장 소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도시개발건축위원회 사무실
- 방 문 단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 외 11명
- 주요내용
 - 도시 기반 및 관광 등 주요 시설 투자유치 및 개발 사례
 - 도로, 교통 및 건축 제도에 관한 현황
 - 도시경관 정책(간판, 디자인 등)과 주요 사례 등

2) 기념사진

도시개발건축위원회 방문 기념 촬영 및 회의 장면

나.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burg)와 건축

1)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반현황

러시아 제2의 도시로서 발트해 핀란드만 동쪽 끝 네바강 하구 델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유럽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및 러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운송 및 물류의 중심지 이다. 북방의 베네치아 라고도 불린다.

《 북방의 베네치아 》

- 도시 내 운하 : 40개 (운하총연장 : 217.5km)
- 교량 : 583개 (도개교 : 20개)
- 네바강 범람 횟수 : 지난 300년간 288회 / 최고수위 : 4.2m(1824.11.78)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해양성 기후와 서시베리아의 대륙성 기후가 교차하여 기온의 변화가 비교적 큰 편이며 연중 200여 일간 눈 또는 비가 오는 지역이다.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백야기간이며, 인구는 457만 명으로 러시아 연방 전체의 3.21%에 해당한다. 인구수로 볼 때 런던, 모스크바, 파리에 이어 유럽의 4번째 도시이기도 하다

♣ 약 사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유럽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된 도시로서 1703년 피터대제가 스웨덴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도시를 건설하면서부터 러시아의 유럽으로 향한 창(窓) 역할을 하였다. (市성립일 : 1703. 5. 27)

1712년부터 1918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으며 러시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러시아 3대 혁명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했다. 1905년의 “피의 일요일” 혁명, 1917년 2월의 부르주아 혁명(차르정권 붕괴 및 케렌스키 임시정부 수립), 1917년 10월의 볼셰비키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권을 쟁취한 볼셰비키 정권은 1918년 수도를 모스크바로 이전하였고, 1924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레닌의 도시”라는 의미의 “레닌그라드”로 개칭하였다.(1989년 UNESCO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1991년 소련이 와해된 후 엘친 대통령은 공산당 활동 저지 및 공산당 재산 압류를 시행하면서 시 명칭을 “레닌그라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환원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인 푸틴 대통령이 2000년 당선된데 이어 2008년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마트비옌코 現시장은 2003년에 취임하였다.

18세기 초부터 러시아 문화사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여 온 바, 문학에 있어서는 푸슈킨, 로모노소프, 베르자예프, 도스토옙스키, 고골 등과 러시아 음악의 거성 차이콥스키 등을 배출하였으며, 피의성당, 여름궁전, 성 이삭 성당 등 러시아 건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시 특성

모스크바에 이어 러시아 제2의 도시이며, 1712년부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전까지 약 2세기에 걸쳐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서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제정 러시아는 물론 소련 시기에도 서유럽 문명을 흡수하고 유럽으로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여 왔으며, 서유럽과의 교류는 주로 핀란드와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리투아니아를 통해 이루어져 온 바, 경제·통상,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동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하였다.

피터대제 시기부터 러시아의 조선 및 방산산업의 중심지였으며 러시아가 시장 경제로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자동차 산업, 기계공업 및 부동산 개발, 식품가공과 관광산업의 중심이 됨과 함께 항만, 철도 및 도로 등을 통한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2차 대전중 독일군이 당시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900일간 (1941~1943)에 걸쳐 공략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독일 패전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레닌그라드 시민 등 80만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 행 정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행정구역 분류상 18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9개의 행정시, 17개의 town으로 구성 되어 있다. 9개의 행정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꼴삐노, 푸쉬킨, 빼쎈르고프, 크론슈타트, 르모노소프, 쉼스트로레즈코, 파블롭스크, 젤레노고로스크를 말한다.

모스크바와 함께 연방시 지위를 갖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시장은 4년 임기의 임명직으로서 시정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세관, 세무행정, 이민정책으로부터 도시 전략발전 등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다.

2003년 선출된 마트비엔코(Valentina MATVIENKO, 1949년 우크라이나 生) 시장은 주 그리스 대사를 역임하는 등 외교관 출신으로서 푸틴 총리 등 중앙정부 지도부와 강력한 인맥을 구축, 시와 중앙정부간 정책조율을 원만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도시의 역사적 배경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00년 동안 제정러시아 즉 로마노프 왕조의 수도였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유럽으로 향하는 창'이란 모토 아래 표트르 대제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늪지대에 세운 도시로써 러시아 '문화의 수도'로 지칭되듯이 18·19세기 서양의 다양한 건축양식을 받아들인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당시의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를 본따서 건설되었다.

이 당시 서구 유럽은 이미 중세를 거쳐 인본주의 사상을 내세운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근대 사회로 진입, 발전하고 있었다. 반면 모스크바는 여전히 중세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스크바가 위치한 대륙의 중앙은 서구 문물에서는 고립된 곳이기도 했다. 모스크바에 뿌리를 내린 종교와 인맥, 계급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꿈꾸었던 표트르 대제의 발목을 붙들어 댔다. 이 진취적인 군주가 몇 백 년에 걸쳐 형성되어온 고답적 전통을 끊기 위해서는 인습의 도시를 떠나야 했다. 그리고 저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바다를 향해 배를 띄우고 돛을 높게 올려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기 위해 표트르 대제는 대양과 유럽에 가까운 곳에 도시를 건설해야 했다.

바다를 사랑했고 항해를 꿈꾸었던 표트르 대제는 대륙의 한 가운데가 아니라 발트해 연안에 도시를 건설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네바강과 핀란드만을 끼고 있는 물의 도시로 북구의 베니스라 불린다. 그 당시로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조치였다. 표트르 대제의 대담한 결정은 당대 모스크바 토박이 귀족들의 불만을 자아내거나 경악시키는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건설과 수도의 이전은 러시아 전체 역사의 운명을 뒤바꾼 혁명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지금까지 네 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다. 10월 혁명으로 왕조가 붕괴된 이후 상트 페테르부르크란 이름은 페트로그라드로 개명되고, 1924년 레닌이 죽자 다시 그를 기념해 레닌그라드로 불리워졌다. 소비에트 정권이 붕괴된 후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원래 이름으로 환원되었다.

3)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건축양식

이 도시의 독특한 도시풍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이에 따른 건축양식의 도입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도시의 기원은 1703년도에 표트르 대제에 의하여 토끼섬에 피터폴 요새가 건설되면서부터 이다. 전통적으로 비잔틴의 영향 아래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던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에 의하여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건립과 함께 선진 유럽 문명을 받아들이기에 힘쓰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표트르 대제는 스스로 계몽군주임을 자임하며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개조에 큰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게 된다. 표트르 대제가 유럽의 최신 학문, 예술, 과학기술, 조선헌 및 도시계획법 등을 들여오고자 노력한 결과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그 시대적 분위기를 따라서 이미 유럽에서는 한물간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는 클래식 양식이 도입되었고, 또한 르네상스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바로크 양식이 곧이어 도입되었다. 이렇게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시대적인 영향에 의하여 어떤 한 건축양식이 주류를 이루는 도시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적인 비잔틴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그리고 혁명 이후의 모더니즘이 혼합된 매우 특이한 유라시아 풍의 도시 미관을 갖게 되었다.

이제 건축사조별로 건축물들을 분류해 보면, 먼저 비잔틴 양식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잔틴 양식은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 정교성당 양식(대표적 건축물로는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으로 사용되던 것이 정교와 함께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대부분의 러시아정교 성당양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피의 구원 사원(스파스나 크라비)이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된 자리에 그를 기념하여 세워진 이 사원은 이미 모스크바에 세워져 있던 성 바실리사원을 모방한 것으로서, 양파형 지붕모양과 형형색색의 색들의 조화 및 현란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하다.

다음 르네상스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은(참고로, 르네상스 양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좌우 대칭과 비례, 황금분할을 중요시하는 양식임) 이 도시의 중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풍 아파트, 상가, 관공서 건물들이 있으며, 중요한



건축물로는 이삭성당, 카잔성당, 러시아박물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바로크 양식의 건물은(바로크 양식은 르네상스 양식과 같은 지나치게 수평, 수직적인 단조로운 구조를 벗어나, 각종 곡선 장식을 건물 내외부에 도입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도출해 내고자 한 양식임) 에르미타쥐 박물관, 푸쉬킨시에 있는 예카제린 궁전, 파블롭스크, 페테르고프 여름궁전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명이후에는 유럽에서 19세기 말부터 유행되기 시작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위압적인 대칭적 건물들이 시 외곽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관공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대표 건축물

최초 도시가 건설되었던 바실리섬과 다른 섬들과 그리고 네바강을 주위로 이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0년 전 네바강 삼각주의 늪과 섬에 지어진 이 ‘물 위의 도시’는 이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항구도시로써 무려 86개의 강과 운하, 10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위 60도에 위치하여 한여름이면 백야로 유명하다. ‘북방의 베네치아’ ‘제2의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운하와 강 사이로 러시아 근세사의 애증이 짙게 스며들어 있는 화려한 궁전과 유럽풍의 각종 건축물, 대사원, 성당들이 자리잡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평면 도면 및 토끼섬 전경

♣ 피터 앤 파울 요새

페터 앤 파울 요새는 1703년 세워진 요새로 18세기 중반부터는 형무소를 겸하였다. Peter와 Paul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성당의 디자인은 D. Trezzini가 하였다. 대성당 첨탑의 높이는 121.8미터에 이른다.

피터 앤 파울 요새

요새에서 출발한 도시는 발틱해로 나아가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했다. 표트르 대제가 서유럽에서 초빙한 뛰어난 건축가와 조경사들은 북구의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냈다. 그런 까닭에 표트르 대제의 이름과 러시아 정교의 성인인 사도 페트로(베드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크라 명명됐다.

♣ 겨울 궁정 에르미타쥬 박물관

표트르 대제가 서유럽에서 초빙한 뛰어난 건축가와 조경사들은 북구의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냈다. 그 중 백미는 당연히 에르미타쥬 국립미술관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패권을 잡았던 유럽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에르미타쥬만큼 전세계 예술품을 골고루 소장한 미술관은 쉽지 않다. 외관조차 황금빛과 파스텔 녹색으로 조화를 이뤄 도시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바로크 스타일의 기품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다.

겨울 궁전 에르미타쥬 박물관은 역대 로마노프 왕조의 거쳐였던 '겨울궁전'과 네 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된다. 1000개가 넘는 전시실에 약 250만점에 달하는 전시품들, 그래서 완전히 돌아보는데 점당 1분씩 잡아도 5년이 걸린다. 표트르 대제의 딸인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여제가 작품 소장을 시작했고 예카제리나 2세가 서구에서 4000점 이상의 회화를 사들여 공간을 메웠다. 전부 3층으로 원시 문화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2층은 가장 인기있는 코너로 마티스의 대작인 '댄스'를 볼 수 있다. 모네, 피사로, 고흐, 고갱과 같은 다른 인상파 대가들의 그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에르미타쥬 박물관 현판과 전경

♣ 피의 구원 사원

카잔 성당의 맞은편에는 전통적인 러시아 건축양식 중 하나인 모자이크 프레스크로 장식된 그리스도 부활 교회가 우뚝 서 있다. 알렉산더 2세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1883-1907년에 걸쳐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피의 사원"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교회의 내부는 27년간의 복구 끝에 (1907년 첫 개관 이후로 90년 후) 드디어 일반에게 공개 되었다. 그 안에는 알렉산더 2세가 상처를 입었던 정확한 위치가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란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인해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피의 구원 사원

♣ 카잔 성당

넵스키 대로를 걷다 보면 길 한쪽 가에 아치형의 성당이 하나 위치해 있다. 이는 스트로하노프 백작의 농노 출신 건축가 바로니킨(A.Varonikhin)에 의해 1801년부터 10년에 걸쳐 지어진 성 카잔 성당이다. 처음에 이 성당을 세울 무렵 바로니킨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기독교 정교회의 제단은 서쪽을 향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입구가 넵스키 대로를 바라보는 수 밖에 없었다. (즉 넵스키 대로에서 볼 경우 성당의 측면이 보이게 됨) 이에 생각을 해 낸 것이 바로 석고대리석으로 1m정도씩 이어서 만들어진 94개의 코린트 양식 기둥으로 성당의 주위를 둘러싸는 방법이었다. 카잔 성당이 완성된 후 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지금도 성당 안에는 승리의 트로피와 상대군으로 부터 탈취한 군기 등이 걸려 있고, 이 곳에서 러시아 군대의 위대한 장군인 쿠투조프(Kutuzov)의 장례식이 거행되기도 하는 등 카잔 성당은 러시아 군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카잔 성당 앞에서 기념촬영과 내부 모습

♣ 성 이삭성당

청동 기마상 맞은편에 위치한 거대한 황금빛 돔은 성 이삭의 날인 5월 30일에 태어난 피터 대제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성 이삭 성당으로, 돔의 크기가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인 101.5m에 이르는 도시의 어느 곳에서도 눈에 쉽게 띄는 건축물

이다. 길이 111.2m, 폭 97.6m로 총 만 4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규모의 이 성당은 1818년, 몽페란드(A.Moontferrand)에 의해 설계된 후 40년이 지나서야 완공되었다. 이 엄청난 공사에는 총 40만명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성당을 장식하는 데에는 대리석과 반암, 벽옥 등 4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석재가 사용되었고, 성당의 내부에는 성서의 내용과 성인을 묘사한 150점이 넘는 러시아 화가들의 회화와 조각품, 12000여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62개의 독특한 모자이크 프레스코화가 전시되어 있다. 43m에 달하는 교회의 전망대에서는 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삭성당 전경과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 여름궁전(분수궁전)

러시아의 베르사유", "러시아 분수들의 수도"라고 불리는 페테르고프는 황제의 가족들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이 여름을 보내던 곳이다. 페테르고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30여km 떨어진 핀란드만 해변가에 위치해 있다. 포트르 대제는 자신의 여름 거처지를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포트르 대제의 명령으로 1714년 착공 1712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공사가 끝난 것은 150년이나 지난 후였다. 1000ha가 넘는 부지에 20여개의 궁전과 140개의 화려한 분수들, 7개의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사에는 러시아와 유럽 최고의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총 동원되었다. 이곳의 최대의 건축물은 바로 대궁전(발쇼이 드바레츠)과 그 앞의 계단식 폭포라 하겠다. 원래 이 궁전은 1714 ~ 25년에 걸쳐 포트르 대제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의 바로크풍 장식은 1745년부터 10년간 겨울궁전을 건축한 라스트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이 곳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내부 인테리어는 복구되어 오늘날에도 잘 보존되어 있다. 페테르고프는 궁전 뒷 편의 '윗 공원'과 "The Necklace of Pearls"라고 불리는 '아랫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랫 공원의 중심은 바로 대궁전 앞의 폭포와 그것을 장식하는 주변의 아름다운 64개의 분수이다. 삼손(Samson)이라고 불리는 대분수에서 시작되는 운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배들이 도착하는 해변가 까지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장난스런 모양의 분수들과 예술품과도 같은 수많은 분수들은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여름 궁전의 분수대 및 그 앞에서 기념촬영

5) 기타 건축물

♣ 표트르의 청동 기마상

여름이면 녹음으로 우거지는 원로원 광장 끝 네바강변 쪽에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알렉산드르 푸쉬킨의 시 “청동 기마상”에도 등장하는 같은 이름의 기마상이 서 있다. 이는 쿠데타로 남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예카제리나 2세가 표트르 대제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1766년, 프랑스의 조각가 팔코네를 시켜 12년간에 걸쳐 만든 것이다.

표트르 대제가 탄 말이 앞쪽 다리를 번쩍 들어올리고 있는 형상의 조각상을 받치고 있는 돌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12베르스타(구 러시아 단위로 1베르스타는 약 1067km이다)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무게가 1600톤에 달하고 길이가 13.5m, 폭 7m, 높이가 8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뇌석이다. 400명이 넘는 장정들이 핀란드만에서 이 곳, 네바강둑으로 이 돌을 옮겨오는데 4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오늘날에도 이 곳은 마르스 광장의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 결혼을 마친 젊은 신혼부부들이 방문하여 꽃다발을 바치곤 한다.

♣ 로스트랄 등대

바실리섬 동쪽 끝에서 180년간 네바강을 지켜온 등대. 로스트랄 등대는 해전에 승리를 기념해서 만들었다 한다. 러시아 4대강을 의미하는 조각이 등대 기둥 옆에 세워져 있다.

높이가 32m나 되고, 해전기념 원주 2개는

그리스 로마시대의 '해전기념 원주'를 본 따서
원주를 빙돌면서 8개의 뱃머리로 장식되어
있다. 국가기념일에만 가스등을 켜다고 한다.

♣ 네바강의 다리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가로지르는 네바강의 13개 다리들이 운항기인 4월 30일부터 개폐된다. 날씨가 예상보다 좋을 경우 그보다 앞서 선박운항이 시작될 수도 있다.

네바강 교량들을 관리하는 '모스토트레스트'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험가동을 통해 모든 교량들의 작동상태를 점검해서 네바강을 이용하는 각 선박운항사들에게 알리게 된다. 다음은 각 다리들의 개폐 시간으로 아래 시간에는 차량들의 교량통행이 제한된다.

♣ 그리바예도바 운하

이 운하는 다리가 낮기 때문에 유람선은 다니지 않지만 산책 코스로 좋은 곳이다. 전 길이 4.5km의 운하는 까뉴쉴나야 광장 근처의 모이까 운하에서 시작되어 판판까 운하와 합쳐진다.

시점인 그리네비쯔 다리 옆에 피의 구원사원이 있으며 카잔스끼 다리를 지나며 옆에는 카잔 성당이 있다. 방콕스키 다리는 황금의 날개를 펴고 있는 그리폰이 다리에 앉아 있다. 석교인 데미토프 다리를 지나며 썬나야 광장이 나온다.

이 주변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인 '죄와 벌'의 무대이다. 네바강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시내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이 도시가 운하와 되심이 잘 조화된 수상도시임을 네바강의 유람선에서 바라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 순양함 오로라

표트르 대제의 오두막 부근, 상트페테르부르크호텔 바로 건너편에는 역사적인 순양 한편이 영구 정박하여 있다. 1897년부터 1900년에 건조되어 1904-05년 러일 전쟁에 참가,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었다. 7000톤급 일반 순양함에 불과했었던

이 함정은 1917년 10월 1일 오전 9시 40분에 함포 한방을 쏘아올림으로써 오늘 날까지도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바로 그 신호탄 한발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레닌을 선두로 한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된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육상전투를 위해 순양함의 대포만 떼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현재 이 곳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6) 도시의 특징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제정 러시아의 200년간 수도이면서 러시아의 중흥을 이끌었다. 도시형성 초기엔 천해의 요새로 입지적 조건은 좋았으나, 초기 도시의 대부분을 매립하였기에 지반이 좋지 않아 고층의 건축구조물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고도제한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낮은 도시 스카라인을 이루고 발전하였다. 비잔틴,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의 건축양식을 모두 채택하여 건축사 박물관 같은 건물과 적절한 오픈스페이스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한 도시이다.

㉠ 18세기 계획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경우 표트르 대제의 야망에 의해 계획된 도시로써 현재의 모습까지는 구상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벌써 1703년에 대규모의 매립을 통한 계획도시를 입안하여 건설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도시계획 구상일 것이다. 이 도시가 철저한 계획도시라는 점을 알고 조금만 정보를 모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 도시를 이해할 수 있다. 넵스키 대로를 중심으로 한 시내 지역, 네바강 주변 지역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근교 지역으로 하여 30여 곳의 명승지를 만들었다.

㉡ 항구·수상 도시

당시 주변의 강국들이 해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아온 표트르 대제로서는 러시아의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은 해양 진출을 위한 항구였다. 당시 러시아의 영토를 고려한다면 최적의 도시 입지는 지금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위치한 필란드 만이었을 것이다. 육지의 물류를 해양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네바강이 있었고 이것은 도시를 형성하면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운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시발점인 항구

와 육지로의 물류 수송의 출발점인 네바강과 도시의 물류 흐름과 수상도시를 아름다움을 조화시킬 수 있는 운하와 적절한 조화가 현재의 상트 페테르부르그를 만들었을 것이다.

㉔ 군사도시

1703년 당시 상트 페테르부르그를 건설했던 목적 중 하나는, 많은 역사가들이 지적하듯이, 국가 방위의 필요성에 기인했다. 표트르 대제가 등극할 당시 러시아는 끊임없는 전쟁에 휘말려 있었다. 남쪽으로는 아조프 해를 두고 터키와 전쟁을 했고, 북쪽으로는 발트해의 지배권을 놓고 스웨덴과 다투었다. 핀란드 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네바 강 어귀의 삼각주는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치르는 데에는 대단히 적합한 곳이었다.

즉 상트 페테르부르그는 러시아 북서쪽 경계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요새로 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의 요새는 요즘도 건설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북방 전쟁의 흔적을 보여준다.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입지는 전술한 것과 같이 해양과 육지를 잇는 네바강이 마주하는 곳이다. 해양진출과 육지로의 진출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으로 그곳에 최초의 도시건설이 요새를 만듦으로써 도시형성이 시작되었다. 물론 제정러시아 200년간과 수도로 사용되면서 모든 군사행위들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서러시아의 해양 진출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건축양식의 특징

㉕ 서양 중·근세 양식(르네상스, 바로크, 코코) 채택

상트 페테르부르그는 서양 중·근세 건축양식의 집합장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잔틴 양식으로는 피의 구원 사원(스파스 나 크라비), 르네상스양식으로는 이 도시의 중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풍 아파트, 상가, 관공서 건물들이 있으며, 중요 건축물로는 이삭성당, 카잔성당, 러시아박물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바로크 양식의 건물은 에르미타쥐 박물관, 푸쉬킨 시에 있는 예까제린 궁전, 파블롭스크, 페테르고프 여름궁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겨울궁전(에르미타쥐 박물관) 같은 경우는 로코코 양식의 내부건축설계를 채택하고 있어 서양 중·근세 양식들이 모두 공존하는 보고가 이 도시이다.

㉠ 모더니즘의 채택(스탈린 양식, 현대양식)

혁명이후에는 유럽에서 19세기 말부터 유행되기 시작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위압적인 대칭적 건물들이 시 외곽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관공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 현대건축물의 양식을 채택한 국제컨벤션센터 등 건물들이 시 외곽부에 다수 존재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임을 도심에서 시 외곽으로 나오면서 느낄 수 있다.

국제 컨벤션센터

8) 정책적 시사점

㉠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항구도시의 중요성

보통 역사가들이 한 국가의 발전을 해양의 확보와 그 활용을 꼽는다. 당시 포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전통적 관습과 종교적 매너리즘에서 탈피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수도 건설을 희망하였고, 당시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의 발전은 해외에서 직접 선진문물을 경험한 그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경우, 포트르 대제의 야망과 꿈이 실현된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보면서 많은 바다의 중요성과 그 활용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외국 문물의 개방적 도입

포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외국문물의 개방이라는 것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외래문화에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많은 건축물들과 예술작품들이 외래문화 개방과 밖으로부터의 많은 인재들이 유입으로 건축물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임을 자랑한다. 한때 쇄국정책을 추구한 뼈아픈 시절도 있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구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문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선진화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발전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㉔ 지속적인 추진으로 계획도시의 완성

300년의 역사를 가진 상트 페테르부르크 네 번의 도시명이 바뀐 것 만큼이나 많은 변화와 역사적 도전이 있었다. 여러 번의 네바강 범람이라는 자연재해와 외세의 침략에도 지금의 이 도시를 있게 한 것은 도시보전과 발전이라는 지속적인 열망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많은 자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높지의 매립과 운하의 건설, 아름다운 건축물은 축조하기 위한 오랜 기간동안의 건축가들의 노력과 의지 등 지금의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있게 한 것은 잘 짜여진 계획아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추진력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많은 신도시 들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처음의 계획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도시 디자인이 엉망이 되는 경우를 볼 때, 현재의 편리함 또는 고질 민원을 두려워함이 후세엔 어떤 악이 될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 투자, 개발, 교통 등

1) 경제일반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지역총생산은 457억불(추정치)로서 전년 대비 8.3%(추정치) 성장하여 러시아 경제성장률 8.1%를 약간 웃도는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연방 전체 경제규모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서연방지구 최대의 산업중심으로서 북서연방관구 소비재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등 총 산업생산의 32.4%를 점유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서연방관구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집약산업(전기 터어빈, 디젤엔진, 자동차, 전자제품, 트랙터, 선박제조, power plant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90%, 제과제품 59%, 낙농제품의 41%, 제화제품의 51%, 의복생산의 43% 등을 생산한다.

2) 교 통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최대의 교통중심으로서 해운, 수로(rivershipping),

철도, 항공, trucking, 파이프라인 등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는 15개의 지역 간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2개의 공항과 5개의 철도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으로 통하는 최대 항만수도로써 러시아 해상운송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Big Sea Port는 발트해 최대 항구로서 러시아의 카고와 컨테이너 운송을 주도하고 있는 바, 2006년 수출입 카고 물량은 54백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컨테이너의 경우 1,449,958TEUs를 처리하여 전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22.2%나 증가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에 이어 철도운송에 있어 러시아 2대 도시로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로 10개선의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연 1억 명의 철도승객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교차하는 철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7백만 톤의 카고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철도 터미널을 통과하였다. 철도여객 수용과 화물 운송을 확대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고속철도와 상트페테르부르크-헬싱키 고속철도를 건설 중에 있다.

운송 관련 주요 프로젝트로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Western High-Speed Diameter로서 투자규모는 30억불이나 된다. 이는 도시고속도로 프로젝트로서 Big Sea Port와 시내 주요 화물 터미널을 연결하는 한편 도시로 연결된 지역 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려는 사업이다. 총연장 46.4km, 14개의 교차로 이외에 터널, 다리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완공되면 1일 11만대의 차량을 수용할 계획이다. 둘째는 Orlov Tunnel로서 네바강 서부강변과 동부강변을 잇는 터널로서 불가 강-발트 해 화물 운송량 확대를 위해 건설 중에 있다. 완공 시 1일 49천대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규모는 10억불에 달한다.

3) 건설 및 투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2006년 한 해 동안 약 14억불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쇼핑몰과 office building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개발사들은 주로 대규모 쇼핑몰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주로 Business Center 등 사무실 건물 건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국 등은 뉴타운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회사들도 뉴타운 건설을 추진 중으로서 시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 52억불, 2007년에는 63억불의 투자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석유·화학(46.5%) 등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금융분야(38.9%), 부동산(4.4%)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도요타 자동차를 선두로 닛산, GM등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지 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장 건립 중으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내 자동차 산업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 (2003~2007) (단위 : 백만US\$)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투자액	696	985	1,417	5,225	6,300

4) 주요 투자 사례

㉠ 바실리 섬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서쪽 바실리섬 앞 바다(핀란드만)를 매립해 한국여의도 절반 크기의 인공 신도시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도시에는 300m 높이의 고층빌딩과 7만여명이 거주할 주택단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신도시 옆에는 33만㎡(약 10만평) 규모의 새항구도 건설될 예정이다. 세계 10대 관광 도시 중 하나로서 시 정부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바실리섬에 대형 여객터미널을 건설중에 있다. 이 터미널은 대형 크루즈선 7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크기로서 최대수용인원은 연 250만명이고, 연방예산 10억불이 투자될 예정이다.

시정부는 얇은 바다를 메워 건립하는 방식으로 터미널에는 각종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특히 발틱 연안국가 들을 크루즈선박으로 잇는 '발틱 크루즈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11년에는 연간 12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이곳을 통해 시내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스프롬 빌딩

'오일 머니'가 뒷받침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변신은 시내 도심에 들어나는 현대식 고층 빌딩에서도 확연히 실감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회사인 러시아 가스프롬은 네바 강변 스몰니 성당 옆 66만 m²(약 20만 평)의 터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이 훼손된다'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스프롬이 이곳에 높이 320m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승인할 계획에 있다.

㉔ 외국 자본 투자

바실리 섬의 신도시 개발은 미국 건축회사 젠슬러가 주도하고 있고, 유럽 최대 쇼핑센터가 될 '넵스키 칼리제이'의 건설은 이탈리아의 마르게리 그룹이 이끌고 있다. 네바 강 하저에 건설할 터널 공사 대금의 3분의 2도 외국 자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라는 뜻에서 '페테르 마피아'로 불리는 현 크렘린 핵심층은 모스크바 건설 경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투자의 물꼬를 지방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上海) 자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서남쪽 외곽에 '발트 해의 진주'라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시는 도시 남쪽 외곽지역에 GM 자동차 공장과 정보기술(IT) 특구인 테크노파크, 서북쪽 외곽에 닛산자동차 공장 건설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과 외곽지역을 잇는 고속 경전철도 연결할 계획이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은 "시 도심은 러시아의 맨해튼으로, 외곽은 산업의 거점으로 키울 것"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말하고 있다.

5) 투자유치 확대 관련 시사점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향후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간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관계기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자본투자유치와 러시아 시장진출 연계를 통한 한·러 투자협력 파트너십 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러시아 개인 부동산 사업가들의 해외 관광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알펜시아 등 평창 동계올림픽 주변 등 관광시설 적극 개발 및 홍보를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투자유치 대상국으로서의 이점과 동시에, 높은 구매력과 지역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투자 잠재력 또한 높은 국가로 해외 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내 잠재적인 한국투자자를 발굴하고 대러시아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관한 정확한 투자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투자업무 지원을 담당할 구심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심점은 양국 간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과 투자대상을 찾고 있는 기업간에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투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의 장(場)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산업별 투자전문가와 함께 러시아 자본유치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함과 동시에, 투자포럼, 투자사절단 정기방문 등 경제협력 관련 회합의 정례화 추진방안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시장인 아닌 미래의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교류 확대와 상호간 투자를 통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경제 특성상 정부차원의 교류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대상으로서의 정보 제공과 나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다 4년 먼저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 기본계획(2005~2025)

1) 기본계획의 목표

새로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본 계획의 목표는 2025년의 대도시 지역(혹은 집합체)의 사회·경제적 개발 전망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도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2) 도시개발의 원칙

- 도시 행정(지역) 경계 내에서 가장 개발된 지역과 교외 정착지 사이의(농업, 여가 용도의) 녹지 공간 보존
- 다른 체제의 중심지 시스템과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망을 포함한 도시체제 개발
- 모든 분야, 종착역과 통신을 통합한 외부 교통의 다중 모드 교통시스템 개발

- 공공 철도 교통 개발에 우선권 부여
- 많은 경우에 수요와 환경적 이득에 따른 기능적 변화를 포함하여 허물어져 가는 산업 및 공동의 유사한 지역의 재개발 예측
- 산업 용도 지역을 희생하여 도시 중심지 확장
- 시장 경제 대도시에 적절한 밀도 단면 달성(즉, 내부 도시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꾸준히 감소)

3) 기능적 구역 설정과 관련한 핵심 결정사항

- 2015년까지 기능적 구역의 보급은 다양한 분야의 예측된 수요에 부흥한다.
- 거주 구역과 공공서비스 및 사업 목적의 구역은 현재의 산업, 공동 서비스 및 기타 허물어져 가는 지역을 희생하여 개발될 것이다.
- 기존의 혼재된 사용을 지닌 인기 있고 안락한 지역 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가된 사무실, 서비스, 주택 및 산업 부지가 존재한다.
- 1960년대 이후에 개발된(전체 도시지역의 2.0%를 차지하는) 여름 별장의 기존 지역은 연중 계속되는 거주지역(소규모 주택 유형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들이 보급될 것이다.
- 북부 핀란드 만 연안의 대규모 휴양지 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지역의 상당한 부분(16%)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연 지역으로 지정되었다.(자연 지역의 31%는 어떠한 개발도 배제되는 특별 보호 하에 있다)

4) 2015년 까지의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주요기본계획 제의

-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부터 최대 화물, 교통, 수송선의 재배치
- 도시 순환 도로의 일부로써의 서 북-남 고속 도로의 개발, 두개의 다리와 볼사야 네바 아래의 터널 건설, 기존 몇몇 대교의 개선
- 서부의 순환선 일부를 포함하여(2004년 98.6km에서) 총 길이 최대 140.1km까지의 지하철 노선 사전 개발, 고속 전차 선로의 개발
- 도시 중심에서 사유 차량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와 외곽에 대규모 차단 주차 시설의 설치
- 핀란드만의 홍수 방지 수로의 건설 완성
- 몇몇 변전소의 현대화로 전력 공급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 새로운 대규모 용수 및 하수 처리장의 건설

- 정수 안 된 물을 유역으로 무분별하게 방출하는 것의 중단
- (2030년까지) 도시 내에 배출되는 모든 물을 가공할 수 있는 오물처리장의 개발
- 모든 이웃 보일러 발전소를 기체 연료로 전환
- 공공 비 거주 부지와 공공 지원 주택 건설의 기준 요건 충족하기

5) 기 타

최대의 단일 문화적 기념물 보존 구역에는 역사적 도시 중심이 포함되며, 몇몇 통일된 보존 지역에는, 역사적 왕립 공원과 궁전이 포함된다. 기재된 다른 어떠한 역사적 장소도 그 보존 구역을 지니고 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주의 개발 프로젝트의 상호 합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은 도시 중심으로부터 60km의 도시 집수 지역 내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보유하고 있다.

6) 시행 관련사항

공청회를 위해 기본 계획이 공표되고 제시되었다. 페리 종착역과 기타(기업, 거주) 용도를 위해 비축된 바실리에프스키 섬의 서부 해안에 제안된 매립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대중 저항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당국은 도시 전역의 필요성을 이웃 지역의 거주민들의 선호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많은 대중 반응들은 적절한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간주되었다. 2005년 12월 연방 당국의 승인 이후, 시 의회는 기본 계획을 채택하였다. 채택에 관한 특별 법률에는 기본 계획 실행에 대한 프로젝트의 목록이 동반된다.

7) 정책적 시사점

도시 경관계획을 별도로 관리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이다. 특히, 건물의 벽의 색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획일성을 지양하고 있으며,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색감의 활용을 강조한 복합형 공원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역사적 보존물과 신규 개발부문의 조화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수변지역 강변도로변 경관조성계획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강변도로변은 관광객이 가장 쉽게 이 도시를 관찰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제 공모 등을 통한 세계적 디자인을 도입하고 아울러 전통과의 모색을 강조함으로써 최고의 경관을 연출해 내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개발건축위원회와의 회의장면

마. 모스크바 국제 비즈니스 센터 (MIBC¹⁾)

1) 모스크바 비츠센터

20세기 말,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 현재의 러시아 모스크바는 치솟는 건물들로 인해 스카이라인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건설 붐은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오일달러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외국의 재벌 투기 자본까지 합세하여 붐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는 거대 도시이면서도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관련 인프라는 매우 빈약했다. 이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정부 주도의 통제경제정책이 지속되었고, 그 후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정책과 소연방의 급격한 해체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2년 입안한 것이 모스크바 비즈니스센터의 건설 방안이었다. 그러나 계획에 비해 10년동안 그 실행이 지지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외국자본까지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



구분	공사 내용	준공(예정)
Plot 1	보행자 교량, 사무소빌딩	2001
Plot 2&3	Wedding Palace, City Square	2007
Plot 4	Aqua Park	2005
Plot 6&7	지하 쇼핑몰, 전철역사	2004
Plot 9	의사당	2007
Plot 10	Naberezhnaya Tower	2007
Plot 11	복합 타워단지	2006
Plot 15	시청사/의회	2007
Plot 16	Russia Tower	2012

1) MIBC : "Moscow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의 약자

▲ 모스크바비츠센터 배치도 및 주요 구획별 공사 내용

이 MIBC는 도시 속의 도시로서, 일명 Moscow-city 라고도 하는데, 위치는 모스크바 도심 서쪽의 3번째 환상선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이중 Plot 16에 들어서게 될 러시아 타워는 완공이 될 경우 높이가 612m로, 유럽 하늘의 차르로 등극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스크바의 부동산 개발 열풍의 중심에 러시아 타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모스크바 강 건너에서 바라본 모스크바 비츠센터와 국제무역센터 건물 모습

이 프로젝트는 전체 부지를 30개의 개발구획(Plots)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가장 먼저 개발된 제1구획의 주요공사는 보행자 전용 교량인 바그레이션 교량의 신설과 사무실 빌딩인 Tower 2000 Office Complex로 2001년에 준공되었다. 이 표에 소개된 이외에도 발전소 건설공사와 신공항건설, 경전철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들이 단계별로 건설될 것이다.

2) 러시아 타워

러시아타워는 모스크바 비츠센터의 상징 건물이기도 하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타워의 형상은 뾰족한 피라미드를 닮았다. 이 타워는 전체 부지의 중앙 뒤편에 가장 높게 솟은 채 단지 내 부속건물들을 부하처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다.

초고층빌딩들의 외관은 대개 커튼월 마감이다. 하지만 커튼월은 대개 외부 공기와의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강제 냉난방을 하게 되고, 이는 여름철 도시 열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타워에서는 커튼월 방식에다 개폐형 창문을 도입하여 자연환기를 함으로서 자연 친화는 물론,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설계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모스크바 국제 비즈니스센터는 ‘미래를 지향하는 러시아의 상징’으로 불리는 120억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뉴욕 맨해튼, 런던 카나리 워프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본떠 1992년 착수했다. 이미 10여동의 고층 빌딩이 세워졌지만 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그런데 최근 다시 공사가 재개됐다.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가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1년 6개월만에 포클레인과 기중기가 다시 움직이게 된 것이다.



▲ 러시아 타워 조감도

3) 정책적 시사점

국제 금융위기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높이를 높여가는 모스크바 마천루들이 경제대국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는 러시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하다. 또 2018년 월드컵을 유치하는 등 점점 글로벌 경제·문화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러시아는 운송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철도수송시스템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으로 낙후된 모스크바의 대중교통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월드컵 경기 때 개최 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고속철도로 연결키로 하는 등 고속접근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다 가장 최근의 발전 경험을 전해 줄 수 있고 기술에서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모스크바 시내를 돌며 현대, 삼성 등 한국 기업의 간판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의 제품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졌고 인구도 유럽에서 가장 많다. 영향력이 미치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지역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을 포함하면 3억명의 거대 경제권이다. 에너지 자원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의 실익을 포함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 국제무역센터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 및 건물내 시계 조형물

3. 주요 방문지

가. 스몰리 수도원

네바강(River Neva) 기슭에 위치하는 플로차드 라스트렐리(Ploschad Rastrelli)에

위치한다. 19세기 초, 예카테리나 2세가 귀족의 딸들을 위한 학교로 설립하였다. 그러나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자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본부가 설치되고,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선언하였다. 1918년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길 때까지 소비에트 정부가 이곳에 있었다. 성당은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매력적인 건물이며 이탈리아식 건축의 걸작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스몰리 수도원

나. 전쟁신 마르스 광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심부에 위치한 9 헥타르 규모의 공원이다. 광장의 이름에 마르스가 들어간 이유는, 이 장소가 오랜 세월동안 군사 행진과 훈련의 장소로 쓰였기 때문이다. 원래 이 장소는 "큰 풀밭"이라고 불렸으나, 대북방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즐거운 풀밭"으로 불린다. 18세기 후반에 "차르의 풀밭"으로 재명명되었다. 파벨 1세의 통치 시기에, 비로소 이곳이 군사 행진과 훈련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805년 혹은 1818년경부터 "마르스 광장"이라는 현재의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17년의 2월 혁명이 진행중일 때 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이후 볼셰비키가 이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해 꺼지지 않는 불을 설치하였고 이 광장의 이름을 "혁명 희생자의 광장"이라 명명하였다.

마르스 광장의 꺼지지 않는 불과 그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다. 피의 구원의 성당(스파스 나 크라비 성당)

러시아어로는 스파스 나 크라비(Khram Spassa na Krovi)라고 하며, 넵스키 대로 카잔성당의 맞은편, 그리바예도프 운하 시작지점에 위치한 성당이다. 알렉산드로 2세가 폭탄테러로 암살당한 곳에 세운 성당으로, 원래 성당의 명칭은 그리스도 부활사원이다. 암살당한 그를 기리기 위해 1883년부터 20여년동안 만들어졌다. 16-7세기의 러시아 건축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붉은 광장의 성 바실리 성당처럼 양파모양에 다양한 색상으로 된 지붕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건축물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물이며 모스크바에 위치한 성바실리사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성당안에는 저명한 화가들의 모자이크화가 많이 전시되어있다.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 한장

라. 카잔성당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성당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추앙하는 카잔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로마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본뜬 네오 클래식 양식의 건물이다. 스트로하노프 백작의 농노 출신 건축가 바로니킨(A. Varonikhin)에 의해 1801년부터 10년에 걸쳐 지어졌다. 네프스키 대로(Nevsky Prospekt) 쪽으로 넓혀진 반원형의 회랑에는 94개의 코린트식 기둥이 늘어서 있다. 건물 내부에는 19세기 초의 거장들이 그린 이콘(icon)이 있고, 특히 《카잔의 마리아 상(Our lady of Kazan)》이 유명하다. 성당이 완성된 후 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성당 안에는 프랑스군에게서 빼앗은 107개의 군기와 승리의 트로피 등이 걸려 있다. 이 곳에서 러시아 군대의 위대한 장군인 꾸투조프(Kutuzov)의 장례식이 거행되기도 하는 등 카잔 성당은 러시아 군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카잔 성당의 외부 및 내부 전경

마. 순양함 오로라 (The Cruiser Aurora)

겨울궁전 정면 네바강 강변에는 러일전쟁에 참전하였던 순양함 오로라호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발틱함대는 28,800km의 8개월 이라는 장거리 항해 원정을 강행하였으나 1905년 5월 우리나라의 대한해협 일대에서 대기 하고 있던 도고 헤이하치로의 일본함대에게 참패를 당했으며 앞서 여순항 및 봉천 등 육전에서도 패전하여, 신흥 일본 제국주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당시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는 38척의 함선 중 19척 침몰, 7척 나포 당하고 겨우 3척만이 울라디보스토크 까지 탈출에 성공, 나머지는 상하이, 필리핀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도주 하였으며, 5천명 이상의 러시아 수병이 전사, 사령관 로제스 트벤스키 제독을 포함한 6천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일본군의 피해는

어뢰정 3척을 잃고 전사자 117명 포함한 사상자 700여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 오로라호는 마닐라로 도주하여 겨우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 이후 발틱함대에 복귀 할수 있었다. 이 오로라 호는 이후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 가담케 된다. 그해 2월말 승무원 들의 선상반란과 민중봉기 참여, 10월 25일 겨울궁전에 대한 포격등으로 볼셰비키 10월 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 대마도(쓰시마) 해전의 영웅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은 열렬한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숭배자 였다고 한다. 해전 후의 한 모임에서 자신을 영국의 넬슨 제독에 버금가는 군신으로 비유하자 "영국의 넬슨은 그 정도의 인물이 못 된다. 해군 역사상 군신이라고 할 제독이 있다면 이순신(李舜臣) 한 사람 뿐이다.

이순신과 비교하면 나는 하사관도 못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조선연구소 발행 "일·조·중 3국 인민 연대성의 역사와 이론" 중에서)

- *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쓰시마 해전은 레판토, 트라팔카, 유틀란트, 미드웨이와 함께 세계 역사를 바꾼 5대 해전으로 꼽히고 있다. 더욱 우리에게 있어서는 러시아와 신흥 일본이라는 두 열강이 우리나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 이었다는 것과 일본의 승리후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라는 간혹한 미국의 이해까지 곁들인 열강들의 요리솜씨로 결국 우리의 국권을 잃게된 뼈아픈 교훈을 주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사전에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승인키로 사전조율 후, 데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에게 강화조약에 합의토록 한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패전이후 점차 고조되는 혁명의 열기로 도저히 전쟁을 계속할 사정이 못되었고, 자국의 영토적 손실이 없는 미국의 중재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일본 이라는 싸움에서 중간에 엉뚱하게 나타나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취한 미국에 대하여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또 한편 못난 조상을 탓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라는 냉엄함 앞에서 우리의 후손에게는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아픔을 물려 주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 본다.

순양함 오로라호 그리고 삼성, 이 느낌은 ?

바. 국립 예르미타시 미술관

1764년 예카테리나 2세가 서구에서 회화 226점을 들여온 것을 계기로 현재는

약 300만점에 이르는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고 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은 서유럽관, 고대유물관, 원시 문화관, 러시아 문화관, 동방국가 문화예술관과 고대화페 전시관 등 총 6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 전시 작품들을 한 점당 1분씩만 본다고 해도 총 관람시간이 5년이나 된다고 하는 에르미타지에서 꼭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은 125개 전시실을 차지하고 있는 서유럽 미술관으로, 이곳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미켈란젤로, 루벤스, 렘브란트 등 우리와도 친숙한 화가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 3대 박물관 가운데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예술품을 골고루 소장한 에르미타시는 바로크 스타일의 기품있는 궁전으로 제정 러시아 황제의 거처였던 겨울 궁전과 '네 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궁전은 원래 이처럼 방대하지 않았지만 표트르 대제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은 후 러시아 황실과 귀족들의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 끝에 제위에 오른 표트르 대제의 딸 엘리자베타가 오늘날의 겨울 궁전을 건설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예카테리나 대제 때에 문화의 황금기를 맞는다. 그녀는 밖으로 실내 정원이 나 있는 '시계의 방'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때 그녀는 겨울 궁전을 프랑스어로 '에르미타시'(은둔지, 인적이 없는 방)라고 즐겨 불렀다고 한다. 이것이 에르미타시 명칭의 유래이다.

미술관 현판과 내부 예술작품 들

사. 이삭성당 (St. Isaac's Cathedral)

성 이사악 성당은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 정교회의 성당으로 지어질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졌다. 높이 101.52m, 성당의 둥근 천장이 21.83m, 길이가 11.2m, 폭이 97.6m인 이 성당은 64~114톤에 이르는 72개의 거대한 원형의 돌들로 둘러싸고 있다. 만사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원래 명칭은 '이사악키이예프스키 사보르'였다고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이 아니라 이사악키이 달마스키라는 러시아 정교회의 성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성 이사악키이 달마스키의 축일이 5월 30일이었는데 바로 그 날이 표트르 대제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인 이삭 성당은 웅장한 금박지붕이 인상적으로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당의 탄생에는 비화가 있다. 습지대가 많은 탓에 건물 기반을 다지기 위해 땅 아래 1만개가 넘는 말뚝을 박고 화강암을 깔았는데 이 때문에 1818년 시작된 공사가 40년이나 걸렸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려한 황금색 문양의 제단과 12사도를 그린 성화, 높은 천장을 수놓은 그리스도 성화 등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예술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이유다.

성 이삭 광장의 니콜라이 1세 동상과 이삭성당의 모습

아. 바실리섬 항구역 (Morskoy vokzal)

상트페테르부르크 Morskoy vokzal은 크루즈 또는 웨리 운항을 위해 1982년 공사를 완공하였다. 도착 장의 총 길이는 720m이고, 통관 심사장소, 터미널 매표소, 호텔, 레스토랑, 컨퍼런스 룸 등이 있다. Morskoy vokzal의 이용객 수는 백만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터미널이 대용량 선박을 포함한 모든 타입의 선박을 받을 수 있다. 단, 채널이 19세기때 설립되어 좁기 때문에 총 길이가 200미터가 넘는 선박이 통과할 수가 없다. 200미터가 넘는 배들은 Morskoy passazhirskiy port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다.

Morskoy vokzal 2차 건설은 총 50,102m²로서 공사 구간 8,190m²의 독특한 디자인이 터미널의 특징이다. 2층 베이스 위에 13층에 연결된 고층 파트 2개를 엮을 예정이다. 5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고급 비즈니스센터, 184개의 객실, 컨퍼런스룸, 통관 및 세관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바실리섬 항구역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모습과 역 앞에서 기념촬영



외부 멀리서 바라본 역의 모습과 역 내부에 있는 기념품점 모습

자. 크레믈린 궁

러시아어로 ‘성채’를 뜻하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중심을 흐르는 모스크바 강가에 있는 옛 러시아 제국 시절의 궁전이었다. 모스크바 말고도 노브고로드, 니즈니노브고로드, 카잔, 아스트라한에도 크렘린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2.25km의 성벽과 스무 개의 성문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여러 시대 양식의 궁전이나 성당이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폐지된 후 소련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의 의회가 설치되면서 소련 공산당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오늘날에도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 관저와 정부 기관이 이곳에 있다.

차. 붉은광장

붉은광장은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의 중앙부, 크렘린 성벽의 북동쪽에 접한 광장으로 다갈색의 포석(鋪石)이 깔려 있으며,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100m, 길이는 500m 가량이다. 남동단의 화려한 바실리블라제누이 성당(16세기), 크렘린 쪽의 레닌묘, 북서단의 역사박물관 등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과 유명한 굶 백화점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15세기 말부터 크렘린 정면의 광장이 되었으며, 차르의 선언이나 판결, 포고가 내려지던 곳이다.

역사적으로는 상업광장·화재광장 등으로 불렸다가 17세기 말부터 ‘아름다운(크라스나야)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크라스나야에는 ‘붉은’이라는 뜻도 있다). 현재 메이데이 등의 시위행사나 사열식이 행해진다.

카. 아르바트 거리

아르바트 거리는 러시아 외무성 건물에서 아르바트 광장에 이르는 보행자 전용 거리다. 찌는 폭염에도 늘 사람들로 붐비는 아르바트는 한쪽에서 악단이 연주하는가 하면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한다.

특히, 아르바트는 지난 1980년대 개혁과 개방의 거센 바람을 주도했던 곳으로, 러시아 젊은이 들이 자유를 부르짖으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던 저항의

심장이었다. 이제 모스크바의 명물이 된 아르바트는 무명화가들의 고향이자, 가수들의 무대이며 안식처가 되고 있다.

아르바트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들이 낭만을 품이했던 거리로도 유명하다. 러시아의 국민시인 푸시킨이 살던 집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그마한 박물관으로 남아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온 통 낙서로 도배된 거리의 한 켠은 러시아 락의 전설인 빅토르 최를 그리워하는 추모벽이다. 아직도 그의 음악을 그리워하는 젊은이 들은 자연스럽게 추모벽 앞에 모여 그의 음악을 노래한다.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르바트는 러시아의 시인과 예술가들의 혼과 낭만을 선사하고 있다.

《 빅토르 최 》

1962년 6월 21일 구 소련 레닌그라드(現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인 2세 아버지 ‘로베르트 최’와 러시아인 어머니 ‘발렌찌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20살 때인 1982년 키노(KINO)라는 록그룹을 결성하고 모두 10여장의 음반을 발표했으며, ‘혈액형’이라는 노래를 발표하여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뿌리 잃은 자유인의 고통을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듯한 그의 노래는 1984년경부터 젊은층, 소외층의 폭발적 지지를 받았다. 1990년 10만 관중을 동원한 모스크바 올림픽경기장 공연을 마지막으로, 한국 공연을 두달 앞두고, 8월 15일 라트비아 공화국의 리가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가 요절하자, 모스크바 예술의 거리인 아르바트에는 추모의 벽이 생기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도 생겨나기도 했다.

아르바트거리의 풍경과 빅토르 최의 ‘추모의 벽’ 모습

타. 모스크바 국립대학

모스크바 국립대학은 러시아 역대 학자 중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미하일 로마노소프가 1755년 크레플린 부근에 세웠다가, 1949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레닌언덕에 건설을 시작하여 1953년 완공되었다고 한다. 정식 명칭은 ‘M.V. 로모노소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이고 줄여서 ‘로모노소프대학교’라고도 한다.

2010년 기준 기계학·수학학부, 물리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토양과학부, 지리학부, 지학부, 재료공학부, 역사학부, 철학부, 언어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언론학부, 아시아·아프리카학부 등의 29개 학부, 350개 학과, 야간부·통신교육부 및 대학원에서 57개의 학부과정, 168개의 대학원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 또는 교수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은 러시아의 정치가로서 구소련공산당서기장과 최초의 대통령을 지내고 1990년 평화상을 수상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니콜라이 세묘노프(1956, 화학), 표트르 카피차(1978, 물리), 알렉세이 아브리코소프(2003, 물리)이다. 또한 작가 안톤 체호프, 수학자 안드레이 콜모고로프, 러시아 출신의 프랑수아화가 바실리 칸딘스키, 물리학자안드레이 사하로프 등이 졸업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파. 모스크바의 지하철

평일 평균 이용객 9백만 명, 모스크바 교통의 52%를 차지하는 교통수단, 바로 지하철이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교통 분담률이 특히 높은 데에는 러시아의 웅장함과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예술적인 승강장이 한 몫 한다.

총 292.2km, 177개 역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중에 하나인 모스크바 지하철은 1935년 10월 15일 손님을 싣고 콥소모스카야역에서 소코르니키까지 단지 두차량만 연결한채 첫운행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다음 사진은 초기 개통시의 지하철의 모습과 2009년 지하철 개통 75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 러시아의 한아티스트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장식된 지하철의 모습을 사진으로 대비시켜 보았다.

▲ 모스크바 지하철의 과거와 오늘

모스크바의 역들은 각기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샹들리에와 모자이크 장식으로 궁전의 면모를 보여주는 곳, 소비에트 시대 영웅의 동상과 벽화들로 혁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 매끄러운 대리석과 화려한 조명으로

고급 호텔의 내부를 연상시키는 곳 등 각각의 역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 지하철은 지하궁전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러시아 지하철의 아름다운 조명의 모습

조명기구나 장식들은 물론이고 소소한 환풍구와 역 이름마저도 각기 디자인이 달라 역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있고 지하철역을 돌며 구경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많은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대부분 땅속 70m 아래에 위치해있다. 1935년 스탈린 시대에 방공호 역할을 겸해 건설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금은 19루블이라고 한다.

▲ 러시아 지하철 내부의 모습



V. 맺은말

-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의 2011년도 핀란드, 러시아 공무국외연수를 위하여 특별히 많은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전희선 영사님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 여러분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개발건축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해외연수 기간동안 경제건설위원회는 2개국 3개 도시를 공식 방문하여 선진 경제·건설·투자유치·건축·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건축 및 투자유치 제도, 건축이 관광 및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생태도시의 건설 특성 및 시사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익한 보람된 연수가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도 발전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 각자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